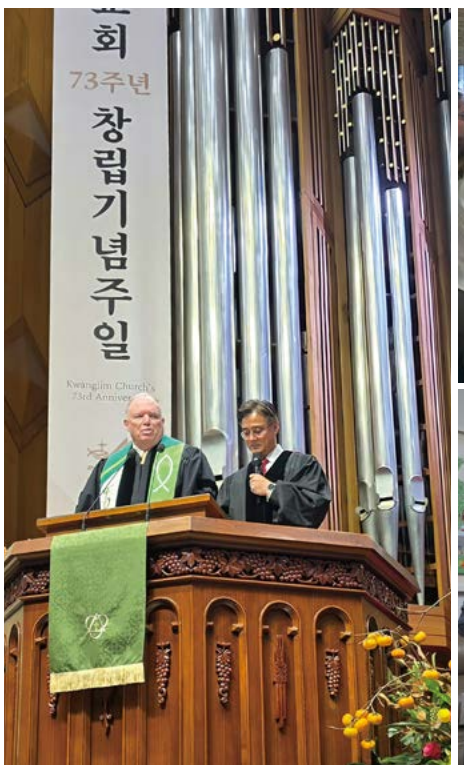
광림교회
KWANGLIM CHURCH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49 TEL 2056-5600
www.klmc.church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교회 창립 73주년, GMC 목회자 방문

광림교회 목회 실습 세미나, 선교구별 심방 목회 동행

복음의 은혜 세계 열방에

광림교회는 11월 1일(주일) 창립 73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창립기념주일예배를 드렸다.

1953년 10월 3일, 장충동 고야사 절터에서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광림교회는 시대의 역경 속에서도 어둠을 밝히며 신앙의 불씨를 이어 왔다. 작은 불꽃은 적극적인 신앙의 불길로 번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 전도와 국내, 해외 선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 중심의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성령의 체험이 있는 호렙산기도회, 다음세대를 위한 사랑은 광림교회가 굳건하게 서는 초석이 되었다. 고(故) 김선도 감독과 김정석 감독회장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은 광림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숲속의 타오르는 불꽃이 되도록 이끌었다.

광림교회는 국내 각 지역의 지교회들과 해외 10개국에 13개 선교센터를 세웠으며, 오는 11월 30일에는 안디옥개신교회 봉헌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땅에 복음의 터전을 회복하게 됐다.

광림의 역동적인 목회 체험

광림교회 창립 73주년을 축하하며 광림의 역동적인 영성과 목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 글로벌 감리교회(GMC)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40명이 10월 27일(화) ~ 11월 4일(수)까지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광림교회와 오랜 친분이 있는 제프리 그린웨이 GMC 감독은 창립 기념주일 2부, 3부 예배에서 광림교회 73년 역사의 신실한 과거와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며 천국소망의 말씀을 전했다.

광림세미나하우스와 광림수도원에서 열린 목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광림교회의 목회 철학과 실천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광림남교회를 방문해 지역사회와 어떻게 목회를 협력하는지, 동탄광림교회를 방문해 개척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었다. 실제 목회 현장을 찾아 각 선교구별 심방에 동행하며 한국적인 돌봄의 목회를 체험하고 성도들과 친교의 시간도 보냈다. 주일에는 교회학교 예배 참관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GMC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은 11월 3일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 참석해 성도들과 함께 에스겔 말씀을 들었고, 일주일 동안의 배움과 느낀 점을 나누며 성찬 및 파송예배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앤디 블라이스톤 목사(세네카 선라이즈교회 담임목사)는 "며칠간 광림의 목회를 체험하며 광림교회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 분명한 목적의식, 모든 일의 중심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다.

폴 조셉 양 목사(스탁턴 그리스도의교회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순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광림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회를 넘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소현수 기자



2 광림의 강단 복음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
3 광림 스토리 안대옥개신교회 봉헌을 위한 건축 현장 방문
4 하나님을 만나다 자랑스러운 우리 속회
6 목회현장 청장년부 레츠고페스티벌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복음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

우리가 교회의 원래 모습을 말할 때 성경에 나타난 두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교회의 예표를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참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행복과 기쁨에 도취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교회로, 말과 행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삶을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세워졌으나 오히려 순수한 진리 위에,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교회,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 더불어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향하여 교회로서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교회가 창립 73주년이 되는 교회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73년 전에 장충동 고야사 절 터 위에서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가마니를 깔고 시작한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올려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장 28절을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예배"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며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안디옥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며 다스리고 인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교회 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제와 봉사, 친교와 나눔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을 해야 하지만, 교회의 교회 됨 곧, 교회의 본질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하여 지는 곳, 십자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그 생명력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처럼 우리교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1:19~26

19.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둘째, 편견과 나눔이 없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즉 '권속'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는 일꾼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를 영접합니다. 이러한 귀한 영접을 받은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인도합니다. 사실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기 이전에 행했던 행동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그를 만나기 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러한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지난 날에는 핍박자였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을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는 편견과 차별성을 넘어 바울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열려진 공동체는 차별성과 배타성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며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일 뿐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섬기고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맺어진 열매를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통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나누어서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 변화되고, 그 변화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눔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구원의 기쁨의 장을 열어가고,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며 열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려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광림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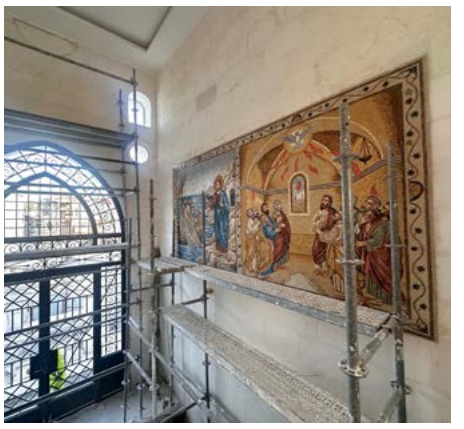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개신교회 봉헌예배를 위한 마지막 점검

김정석 감독회장, 10월 21~22일 안디옥개신교회 건축 현장 방문





지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100년 문화재의 부활, 튀르키예 최초의 개신교회

튀르키예 최초의 개신교회이자 역사적인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개신교회가 지난 2023년 2월 6일 대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진 아픔을 딛고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

원래 안디옥개신교회 건물은 프랑스 영사관과 은행으로 사용되던 100년이 넘은 문화재 건물이었다.

이번 재건 사업은 튀르키예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복원 절차와 심사를 거쳐 2025년 11월 건축 승인을 받으며 튀르키예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회 건물로서 재건 중이다. 현재 지진의 피해가 컸던 안디옥(안타키야) 지역은 활발한 재건 작업과 함께 뉴 타운 조성이 시작되었으나, 교회가 위치한 구역은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모든 건물이 문화재인 만큼 복원이 까다롭고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그중 안디옥개신교회는 이 지역 역사문화지구에서 최초로 재건되는 건물이 될 예정이다. 문화재 건축 규정에 따라 기존 석재를 30% 이상 사용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다.

김정석 감독회장 현장 방문 및 마지막 점검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는 11월 30일 봉헌예배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0%에 달하며, 외관은 완공되었고 실내 인테리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현장에서 건축사에 마무리 공사를 완벽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둘러본 교회 내부에는 장인들의 손길이 닿은 섬세한 복원 흔적들이 가득하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바닥 타일, 나무 창틀, 철재 샹들리에 등이 현지 장인들에 의해 수공예로 제작되었다. 특히 모자이크로 유명한 안디옥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천연돌을 이용해 제작된 대형 모자이크가 설치된다. 또한 이스탄불에서 제작되어 현지로 보내져 설치될 스테인드글라스 또한 앞으로 안디옥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월 30일 드려질 역사적인 봉헌예배

안디옥개신교회는 오는 11월 30일(월) 오후 3시 30분에 감격적인 봉헌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번 봉헌은 광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기독교회 전체의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획을 긋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현지 성도들도 봉헌예배를 앞두고 간절한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 매일 건축 중인 교회를 오가며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체크하는 등 본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번 성전 건축은 온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위원장 오해일 장로는 현지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외선교위원장 문찬수 장로를 중심으로 한 국외선교위원회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를 비롯해 각 선교구, 청년부, 교회학교 등 교회 내 모든 기관과 부서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교회의 재건을 이뤄내고 있다.

지진의 상처를 이겨내고 안디옥개신교회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선교의 불을 지피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제37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제37회 총회가 '창조·생명·평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회'(롬 12:2)라는 주제로 10월 29일(목)에서 30일(금)까지 양일간 광림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는 지난 감독 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감독들의 이·취임식을 비롯한 교단의 행정적 사항을 논의하는 행정총회로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총회와 행정총회를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오르간의 연주에 맞춰 태극기와 기독교대한감리회기의 입장으로 시작된 총회의 개회예배에서는 200여 명의 성가대원과 50여 명의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광림교회 연합성가대가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가대의 찬양이 끝난 뒤에, 김정석 감독회장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골 3:12~15)라는 설교를 통해 "세속화와 물질주의, 산업화의 시기에 시대를 뒤따라가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긍휼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 이 땅에 평화와 화목의 역사를 일으키며 시대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회예배가 끝나고 첫 번째 회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광림교회 갈릴리 중창단과 연주자들의 특별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총회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김정석 감독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는데, 갈릴리 중창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자들의 연주는 총회를 위해 광림교회에 방문한 총대원들을 위한 환대의 선물이 되었다.

이튿날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무를 마친 뒤 감독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는데,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비롯한 12개 연회의 감독 선거 당선인들이 새롭게 연회의 감독으로 취임하여 2년간 각 연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번 총회를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존 웨슬리의 정신을 계승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감리교회가 되기를 새롭게 결단했다.

황지수 목사(문화홍보실)

포토 뉴스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10월 10일(토) ~ 11월 18일(수)까지 웨슬리관 3층 고등부실에서 열리고 있다. 11월 19일 수능 당일에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8시 40분부터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추어 기도회가 진행된다.



창립 73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
광림교회 창립 73주년 및 추수감사절 기념 〈TOLLE LEGE〉 전이 장천갤러리에서 11월 1~29일(주일)까지 전시 중이다.



제4회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통일을 소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4회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가 11월 28일(토) 오전 8시에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다.

감독회장 동정



10/29~30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7회 총회
	감독 이·취임식
11/1	창립 73주년 기념주일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열방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8선교구

안디옥개신교회를 위한 정성을 모으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 5:14)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과 성도들의 묵묵한 헌신이 아름답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2000년 광림교회의 헌신으로 봉헌되었던 안디옥개신교회가 지난 2023년 대지진으로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은 탄식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틔우셨습니다. 전 교인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 끝에, 마침내 안디옥 성전이 재건되어 2026년 11월 30일 가슴 벅찬 봉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재건의 현장에 8선교구 성도들의 귀한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뜻을 모아 160가정의 성도들이 1억 4천 8백만원을 선교헌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8선교구 성도들의 정성이 담긴 헌신은 안디옥개신교회 스테인드글라스의 일부와 외부 십자가 및 성전의 비품을 위한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어두운 성전 안으로 다채로운 빛을 투영하는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성도들의 헌신이 튀르키예 땅에 소망의 빛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빛을 향한 8선교구의 아름다운 발걸음은 멀리 P국 K스쿨을 향해서도 신실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4년간 '매달 1인 1만원 후원'을 통해 매년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사랑을 전하였고, 이는 타국 아이들에게 복음과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국경을 넘어 전한 이 작은 정성들이 모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기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방을 향했던 은혜와 사랑의 온기는 우리 삶의 자리인 예배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예배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며 거룩한 주일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영혼에 신선한 생명수입니다.

지난 복음전도주일 저녁예배는 8선교구 주관으로 드렸습니다. 1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이날 예배는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박성현 성도의 특별 오르간 연주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 여금정 성도는 새가족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광림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선교구 성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교구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열방의 영혼을 품으며 주님의 안식처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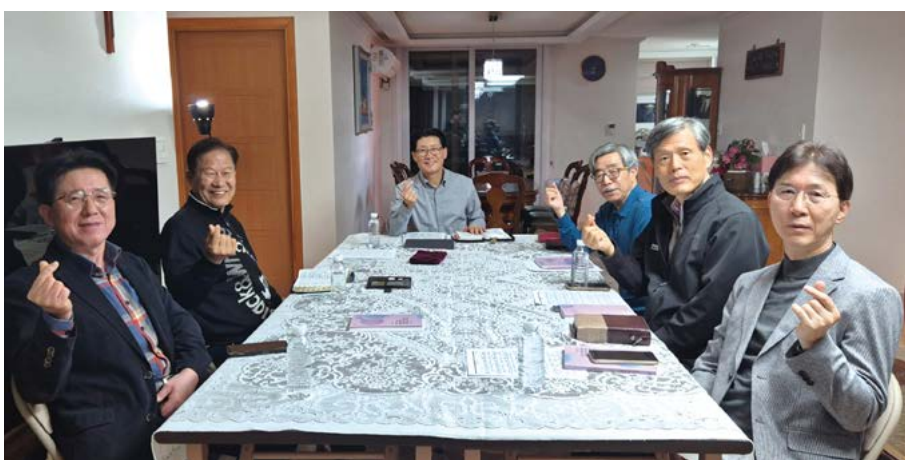
김상문 권사(8선교구 연합회장)



늘 함께하며 은혜가 더해가는 18교구 속회

우리 속회의 시작은 카톡의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오후 8시 저희 가정에서 속회를 드립니다. 공과는 18과 에베소를 흔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눕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속도원들은 시간과 장소를 인지하고 기도로, 기대함으로 속회를 준비합니다. 주로 김병남 장로님 댁에서 모이는 우리 속회는 장로님의 멋진 우크렐라 반주에 맞춰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간이 테이블 두개를 잇대고 하얀 천을 씌워 성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테이블에 성경책과 속회 공과 책을 펼쳐놓고 함께 모인 속회원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과를 나누어 읽고, 말씀을 나누며, 각 가정의 희노애락을 함께 이야기하고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것들이 문제로서 다가오지만 중보기도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소명,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바뀌어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공동 기도제목에 맞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제목의 순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의 공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많은 보완 자료를 통해 속회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각자의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시작기도, 중보기도, 헌금기도, 애찬기도, 잇따른 순서마다 속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속회원들은 각자 평소 생각하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함으로서 하나가 되는 속회가 됩니다. '남성들의 수다'가 믿음 안에서 이어질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게 되며, 그 안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장소를 제공하시고, 애찬을 준비해 주시는 김병남 장로님 가정의 준비된 마음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헌신과 섬김 안에서 믿음으로 속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회원 모두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가능하면 항상 속회에는 참석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속회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김선구 집사님은 "우리 속회 모임은 장로님의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중보기도에 힘쓰는 따뜻하고 건전한 공동체이며 제 신앙생활의 큰 활력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진용 권사님은 "각기 다른 사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속회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공감하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속회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속회는 하나님 안에서 배려와 섬김을 기본으로 모두가 참여하여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로서, 오랜 시간 축적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기쁨으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재훈 권사(18교구)

청년부

가을 LTS 개강, 다양한 강의와 맞춤형 코칭

배움을 통해 믿음과 삶을 세워가는 청년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LTS(LFC Training School) 2026년 가을학기가 지난 10월 31일(토) 개강했다.

LTS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AI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크리스천 재정관리' 등 세 가지 강의와 맞춤형 코칭이 마련되었다.

개강일에는 개회예배에 이어 강사 소개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각 과정의 첫 번째 강의가 열렸다. 강사들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병이어로 무리의 배고픔도 돌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과를 마련했다. 강의와 더불어 청년들의 필요를 살피는 섬김으로 개강의 자리를 따뜻하게 채웠다.

'AI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법을 익히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본다. 웹페이지와 이미지, 음악 콘텐츠를 제작하고 숏폼 영상 만들기에도 도전하며, 생각으로만 품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경험을 쌓는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강의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만남과 이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 나아가 결혼의 의미와 비전을 살펴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가정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크리스천 재정관리' 강의에서는 성경적인 재정관과 물질의 의미를 배우고, 소비·저축·투자를 균형 있게 살펴본다. 돈에 대한 생각부터 일상의 습관까지 돌아보며,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재정관리 계획을 세워간다. 두 강의는 청년들이 관계와 재정이라는 일상의 중요한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실천할 지혜를 얻도록 돕는다.

이번 가을학기에는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과정별 1~3명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진로와 취업, 창업, 일터와 관계 등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을 코치와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운다. 회기 사이에는 코치와 합의한 과제를 실천하고, 다음 만남에서 경험을 나누며 목표와 실천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코칭에는 청장년부와 장년부 성도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코치로 함께한다. 청년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서로의 은사와 경험을 나누어 온 LTS가 세대를 잇는 배움과 섬김의 자리로 넓어진 것이다.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방향을 찾아갈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든든한 힘이 된다. 이번 만남이 청년과 청장년, 장년을 이어 주며 삶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나누는 동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LTS가 청년들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함께 배우는 이들이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로 자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청년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 강사들과 코치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배움과 만남의 열매가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청장년부

복음전도주일, 레츠고페스티벌

청장년부(위원장 신범식 장로)에서는 복음전도주일을 맞이하여 청장년부 레츠고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레츠고페스티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청장년부를 소개하고 함께 교제하는 행사로, 매 복음전도주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3040세대 싱글부서인 청장년 1부에서는 교회에 처음 방문한 미혼 성도들을 대상으로 '나 혼자 못산다'라는 주제로 레츠고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개인주의와 불안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혼자만의 고립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나누고자 마련된 이번 모임은,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굳어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진솔한 대화와 친교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참석자들은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

기혼 세대를 중심으로 모인 청장년 2부에서는 'Let's Go Together'라는 주제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다채로운 순서가 이어졌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며, 따뜻한 환영인사와 함께 새가족들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패널 토크'를 통해 결혼 10년 차, 5년 차, 1년 차 부부가 신앙 안에서 겪는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의 고민,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가는 실제적인 지혜와 간증을 진솔하게 나누며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사전에 자유롭게 작성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성도들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깜짝 시상식을 진행하여 풍성한 기쁨을 더했으며, 속별 자유 나눔을 통해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청장년부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믿음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믿음이 삶의 원리가 되어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청장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

황지수 목사(청장년부)



목회현장

신앙교육의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같은 심폐소생술이라도 언제 시작하느냐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신앙교육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가 성장한 뒤에 신앙을 가르쳐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교육의 골든타임은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아이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요한 신앙교육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기관과 부서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매일 오전, 어린이집(0~4세)과 샤이닝키즈(5~7세)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주일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 어와나에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 받은 아이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일평생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광림교회의 다음 세대가 양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배운 아이들은 늙어서도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어린 아이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평생을 지키는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할 곳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26)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도록, 또한 성령님께서 아이들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9월, 미취학부에서는 '온전한 교사, 능력 있는 교사'라는 주제 아래 미취학 교사 어번던트라이프1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교사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성경 말씀을 주제별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미취학 교사·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미취학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 막중한 일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특별히 복음전도의 달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전도 행사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미취학부 복음전도주일에 영아부 아이들을 위한 마켓플레이데이, 유아부와 미취학 어와나 아이들을 위한 샤이닝 플레이그라운드(Shining Playground),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달란트 시장 등 효과적인 전도 행사가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최근 10주 중 가장 많은 아이들이 부서에 방문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11월 매주 주일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도',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취학 교사 어번던트라이프2 강의를 진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는 미취학 교사·학부모 기도회로 모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며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취학부를 향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지훈 목사(교육1부)

광림북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가을바자회



광림북교회는 지난 10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선교회 주관으로 가을바자회를 개최했다.

매년 열리는 광림북교회 가을바자회는 국내외 선교 재정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나눔의 장이다. 이번 바자회 역시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들이 준비와 진행에 힘을 모았으며, 남편과 자녀들도 함께 손을 보태 교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성도들의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전도의 달'을 맞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

바자회 현장에서는 교인들이 후원한 의류와 교회학교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비롯해 떡볶이, 김밥, 해물파전, 김치전, 국수, 어묵꼬치 등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가 판매됐다. 또한 배추김치와 파김치, 각종 젓갈류 등 직접 만든 반찬거리들은 큰 호응을 얻으며 조기에 품절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성도들이 하나 되는 화목의 장이었다. 성도들은 너나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서로를 격려했다. 나아가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가족들을 초청해 인사를 나눴으며, 지나가던 이웃들도 교회의 화목한 모습에 이끌려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교회에는 평안함이 더해지고, 지역사회에는 온정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광림북교회 여선교회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선교비로 전달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교회 내부의 화목을 지역사회 섬김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선교가 일상 속 나눔과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광림북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종수 전도사(광림북교회)

동탄광림교회

전교인 40일 성경 1독 챌린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성경 통독'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고 다짐하며 새해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열심히 읽다가도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하며 점점 미루다 보면, 어느덧 한 해를 결산하는 11월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동탄 성전 성도님들은 그 다짐을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11월 첫 주부터 40일간 '성경 1독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일에 시작한 챌린지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을 읽고 12월 17일에 마무리됩니다. 하루 분량은 평균 30장 안팎으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날 읽을 범위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매일 공유해 드립니다. 전교인이 동참하는 가운데, 매일 같은 분량을 함께 읽으면 오늘 어디까지 읽을지 혼자 정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놓쳐도 다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경을 펴고 그날의 분량을 직접 읽으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소리 내어 읽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매일의 분량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집안일을 하시는 동안 귀로만 들으셔도 되고, 놓친 날의 분량은 언제든 다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달라도 온 교회가 같은 날, 같은 본문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성경 1독 챌린지와 더불어 선교구 성가제 찬양 연습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동탄성전은 말씀과 찬양으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동탄광림교회 유튜브를 통해 40일 성경 1독 챌린지에 동참해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우리의 모든 걸음이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박종혁 전도사(동탄광림교회)

광림샤이닝키즈

2027학년도 신입 원아 모집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전인적 교육의 요람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어린이들을 양성해 온 광림샤이닝키즈(원장 권정숙)가 2027학년도 신입 원아를 모집한다.

기도하며 만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따뜻하고 세심한 양육으로 학부모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온 광림샤이닝키즈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들의 영성과 지성, 인성이 균형 있게 자라나도록 돕는 전인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설립된 광림샤이닝키즈는 5~7세 어린이를 위한 선교 유치교육기관이다. 광림교회의 신앙적 가치관과 김정석 감독회장의 '전생애·전인적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믿음의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있다.

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신앙 바탕의 전인 교육'과 '풍성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조화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며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성품을 다지고, 누리과정을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여기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몰입형 영어 수업, 감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체육·음악·미술·생태 체험을 다채롭게 배치해 아이들이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광림샤이닝키즈가 다져온 신앙 교육의 결실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 얼마 전 한 초등학교 공개수업에서 "언제가 가장 기쁘냐?"는 교사의 질문에 아이들은 놀이공원에 갈 때나 선물을 받을 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곳을 졸업한 한 어린이는 "저는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해요"라고 대답해 교실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일상의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은 어릴 적 기도의 반석 위에서 형성된 바른 신앙과 성품이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시설과 친환경 교구, 균형 잡힌 영양 급식 시스템을 갖추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과정 및 연장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안전한 등·하원을 돕는 셔틀버스를 함께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권정숙 원장은 "모든 교직원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다. 아이들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 나가도록 세심한 돌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살펴보시고 뜻깊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첫걸음을 기도의 반석 위에 올려두고, 바른 성품과 따뜻한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곳. 아이의 소중한 시작을 든든하게 동행해 줄 광림샤이닝키즈는 이번 신입 원아 모집을 통해 따뜻한 첫걸음을 함께할 5~7세 어린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신입 원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1층에 위치한 광림샤이닝키즈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광림샤이닝키즈(02-2015-1101)

서미라 기자



찬양으로 세우는 예배, 헌신으로 드리는 하모니

광림남교회 음악위원회 위원장 - 권정숙 장로



주일예배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까지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광림남교회 음악위원회는 가나안성가대와 새하늘성가대, 올프레이즈 찬양단의 사역을 지원하며 예배를 세워가고 있다. 2025년부터 음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정숙 장로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남교회 음악위원장을 맡고 계신 소감은?

교회학교 중고등부와 초등부, 영어예배부에서 약 30년 동안 교사로 섬겼습니다. 2019년 장로 직분을 받고 광림남교회 교육위원장으로 봉사했으며, 2024년 12월부터는 광림샤이닝키즈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악위원장을 맡으면서 역대상 25장에 기록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귀한 사명을 설교를 통해 깨달았고,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음악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광림남교회에는 2부 예배의 가나안성가대와 오케스트라, 3부 예배의 새하늘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저녁예배의 올프레이즈 찬양단이 있습니다. 음악위원회는 담당 목사님과 함께 예배 음악을 기획하고 절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며,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들이 원활하게 사역하도록 돕습니다. 악보 구입과 장비·가운 관리, 음악행사 등 행정적인 부분도 맡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찬양의 순간은?

올해 10월 복음전도의 달에 열린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자선후원음악회'는 찬양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트리니티 찬양단 초청 찬양예배'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일 광림교회 창립 73주년 기념주일의 '올프레이즈 찬양의 밤'에서는 찬양단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워십과 찬양으로 감사예배를 드리며 세대가 하나 되는 기쁨을 나눴습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가나안성가대와 새하늘성가대에는 이동엽·양태갑 지휘자님을 비롯해 반주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 솔리스트 등 많은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가대원의 절반 가까이가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오셨고, 특히 서명원 권사님은 고령에도 새벽예배 1부와 2부 반주를 묵묵히 이어가며 귀한 본보기가 되어주십니다.

청장년으로 구성된 올프레이즈 찬양단과 매주 이른 아침부터 연습하는 성가대원들, 대장님과 임원들, 방송과 악기 조율을 맡은 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기에 예배의 찬양이 완성됩니다. 그 모든 수고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음악위원회에 바라는 것은?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자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는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서고, 서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 자리가 차고 넘치고, 찬양하는 사람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위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34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 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삿 3:28)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왕 에글론의 가혹한 통치로 고통 속에 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발탁하여 세웠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나서게 되었다.

에훗은 날 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며 단단히 준비했다. 에글론의 호위대는 에훗이 왼손잡이였으므로 오른쪽에 칼을 숨겼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에훗의 옷을 수색하는 사람도 없었다. 드디어 에글론과 만난 에훗은 먼저 공물을 바친 후 공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에훗이 에글론에게 말했다. "왕께 은밀히 아뢸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주위에 있던 신하들을 모두 내보냈다. 독재자답게 의심이 많았던 에글론은 혹시나 반란자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에훗의 말을 자세히 듣고자 몸을 일으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긴 칼을 재빨리 빼내어 에글론의 배를 찔렀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삐져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왕이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않자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이 다락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내려왔다. 에훗은 그들을 앞장서 모압 족을 향해 공격하였다.

이때 에훗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모압의 군사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모두 전멸시켰다. 이렇게 모압을 굴복시킨 이스라엘은 이후 80년 동안 다시 평화와 독립을 누렸다.

여자 사사, 드보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삿 4:1~2)

에훗 이후로도 여러 사사가 뒤를 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인한 성격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교도들을 물리쳤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가나안 이교도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에훗이 죽고 난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백 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용맹스러웠던 삼갈이 죽자 가나안의 왕 야빈은 이스라엘의 국경에 출몰해 가축을 훔치고, 남자들을 죽였으며,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삼갈 이후로 사사가 없던 시기여서 과연 야빈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야빈의 군대에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 그는 이집트 출신으로 야빈의 수하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었다. 게다가 야빈에게는 철갑 병거 9백 대가 있어서 마치 칼로 물을 베듯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목숨을 쉽게 앗아갔다.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 야빈의 학대를 받았으며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

한편 벧엘 근방에 드보라(Deborah, '꿀벌'이라는 뜻)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드보라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드보라의 뛰어난 예지력은 서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일들을 물어보곤 하였다. 야반의 군대에 늘 걱정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도 드보라를 찾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드보라는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고 충고한 후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들였다. 바락은 근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용사였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시스라에 맞서 용감하게 싸우라고 종용하였다.

그러나 바락은 주저하며 말했다. "결국에는 재앙으로 끝날 것이오. 우리 군대는 철갑 병거 부대의 상대가 될 수 없소"

드보라는 이스라엘군이 먼저 공격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철갑 병거가 두려웠던 바락은 여전히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다.

◀ **시스라의 위용_**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시스라는 철갑 병거 9백 대를 거느린 이집트 출신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군은 그에게 무참히 죽어 나갔다.

▲**시스라 군과의 전투_** 드보라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용맹을 떨치던 시스라에게 당당히 맞서 싸워 승리했다. **후안 드 라 코르테 작품**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이에 드보라는 만약 자신이 따라가야 용기가 생긴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장군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여도 그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고 한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그런데도 바락은 드보라에게 승리의 영광을 양보하기로 하고,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의 요새를 떠나 시스라 군을 향해 출전했다.

전쟁이 시작되자 시스라의 철갑 병거는 기손강에 진을 치고 다볼산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군의 편이었다. 하나님은 시스라와 그의 철갑 병거들을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시스라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크게 패하고 말았다. 얼마 안되는 생존자들은 달아났고, 용맹했던 시스라조차도 도망치고 말았다.

광림 뉴스레터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신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편집인 황지수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세나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 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희윤 백명순 서미라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광림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